

근대 전환기 ‘개벽’의 불온성과 개념화

— 동학·천도교를 중심으로*

허 수**

[초 록]

이 글에서는 19~20세기 초 동학·천도교에서 사용한 ‘개벽’의 용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동아시아에서 ‘개벽’의 전통적 의미는 ‘세상이 열리다’였다. 19세기 중엽 동학교조 최제우는 ‘다시개벽’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세상이 뒤집히다’라는 의미가 들어감으로써 전통적 의미를 혁신하였다. 그러나 이런 용례는 그것이 가진 불온성으로 인해 많이 사용되지 못했다.

‘다시개벽’을 잇는 논의는 1910년대 천도교단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후천개벽’은 ‘다시개벽’을 계승하되 ‘선천-후천’의 상수학적 사유를 포괄하여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반면, 이 시기의 논의는 종교

* 이 논문은 ‘개벽의 시선에서 다시 쓰는 한국근현대사상사’라는 학술대회(2021년 9월 4일 화상회의로 개최,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와 세교연구소 주최)에서 발표한 것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제목은 발표 당시의 것과 동일하다.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주제어: 개벽, 다시개벽, 후천개벽, 불온성, 개념화, 사회진화론, 역사, 혁명
Gaebyeok, *Dasi-gaebyeok*, A New Great Opening, *Hucheon Gaebyeok*, The Later Day's Great Opening, Subversiveness, Conceptualization, Social Evolution Theory, History, Revolution

교단 차원에 국한되었다. 이와 달리 1920년대에 ‘개벽’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졌고 다양하게 의미부여 되었으며, 점진적 발전론 속에서 논의되었다. 이런 경향을 ‘개념화’라 부를 수 있으나, 그러한 ‘개념화’는 제한적 범위에 그쳤다.

‘개벽’의 제한적 개념화는 근대적 의미화에 대한 거부로 볼 수 있다. 「검결」의 불온성을 강조하거나, 사회진화론 및 단선적 발전론을 상대화하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했다. 물론 ‘개벽’은 ‘역사’나 ‘혁명’의 경쟁상대가 되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도교 인사들이 ‘개벽’의 사용을 고집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런 태도는 얼핏 보면 진보적 시간인식의 대세 속에서 간헐적 사례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신종교를 비롯한 많은 한국인에게 ‘후천개벽’이 확산되고 지속된 사실을 드러내는 단초에 해당한다.

1. 머리말

현대 한국어에서 ‘개벽’은 상호 연관되지만 뚜렷하게 변별적인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세상이 열리다’와 ‘세상이 뒤집히다’가 그것이다.¹⁾ 이 가운데 ‘세상이 열리다’라는 의미는 ‘천지개벽’과 같은 표현에 들어있는 것으로, 동아시아에서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반면, ‘세상이 뒤집히다’라는 의미는 ‘개벽’의 고전적 풀이에는 없었고, 오늘날에도 동일한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중국 및 일본의 ‘개벽’ 풀이에서 찾아볼 수 없다.²⁾

1) 『표준국어대사전』의 ‘개벽’ 항목에는 세 개의 뜻이 있다. ‘첫째, 세상이 처음으로 생겨 열림. 둘째, 세상이 어지럽게 뒤집힘, 셋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그것이다. 이 중 셋째 의미는 비유이므로 첫째나 둘째 의미로 환원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개벽’이 가진 기본적인 의미는 ‘세상이 열리다’와 ‘세상이 뒤집히다’의 두 개로 압축된다.

2) 한승훈(2018), 「開闢과 改闢: 조선후기 묵시종말적 개벽 개념의 18세기적 기원」, 『종교와 문화』 34, pp. 205-206. 여기서 한승훈은 이러한 독특한 용례를 ‘묵시종

그렇다면 ‘세상이 뒤집히다’라는 의미는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19세기 후반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가 그러한 의미의 ‘개벽’을 사용한 뒤, 그 의미는 20세기 전반 동학·천도교 및 신종교의 ‘후천개벽’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이런 의미로 사용된 ‘개벽’의 초기 조건을 탐구하여, 수운의 ‘다시개벽’을 조선후기 엘리트 문화와 민중 문화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조명한 연구도 나왔다.³⁾

그런데 ‘개벽’이 가진 ‘세상이 뒤집히다’라는 의미나 ‘후천개벽’이라는 용례는 학문적 공론장의 중심에서 논의된 적은 거의 없었다. 그 대신 사용된 용어는 ‘혁명’, ‘변혁’ 등이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보인다. ‘후천개벽’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증가, ‘개벽’을 한국 근대의 특정 정치세력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려는 시도, 수운의 ‘다시개벽’을 제호로 삼은 잡지 창간 등이 그것이다.⁴⁾ 이런 동향은 지금까지의 논의양상, 즉 소수에 국한된 전문적 학술 연구나 혹은 이와 반대로 신종교 교단이 주도하는 종교행위 차원의 논의와 달리, 일정한 공감대를 가진 연구자 집단의 가치 지향적 비전을 담은 학문적 활동이라고 생각되어 주목할 만하다.

‘개벽’에 대한 학계 안팎의 관심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향후 ‘개벽’에 관한 지속가능하고 유의미한 학문적 논의는 어떠한가 할까? 한편으로 최근의 논의에서는 ‘개벽’이라는 용어의 가치와 함의를 높이

말적’ 개벽 개념으로 부르고, 이와 구별되는 고전적 용례를 ‘우주창생적’ 개벽 개념으로 명명했다.

- 3) “근대 이행기 한국인들로 하여금 기존의 문화적 재료 가운데 개벽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재해석하게 한 것은 당대의 종말론적 에토스였다.” 한승훈(2018), p. 237.
- 4) 백낙청(2020), 『문명의 대전환과 후천개벽』(박윤철 엮음), 모시는사람들; 조성환·이병한(2019), 『개벽과선언』, 모시는사람들; 『다시개벽』 2020년 겨울호, 모시는사람들;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편(2020), 『근대한국 개벽운동을 다시 읽다』, 모시는사람들.

평가하면서도 정착 이 용어의 구체적인 용례나 역사적 맥락에 관한 종합적 설명은 부족해 보여 아쉽다.

다른 한편에서는, 역사 속 특정 시점에서 ‘개벽’이 가진 순수한 의미에 집착하는 태도도 보인다. 예컨대 어떤 연구는 수운의 ‘다시개벽’과 천도교 시기의 ‘후천개벽’ 간 차이를 강조하고, 나아가 수운의 개벽론은 ‘선천-후천’의 도식을 가진 상수학적 논의의 결정론적 사유와는 질적으로 다른 순수한 사유로 본다.⁵⁾ 이런 접근은 어떤 사유의 원형질적 특성을 준별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으나, 특정 의미를 내포한 ‘개벽’의 용례가 다른 용례들과 결합·분리해 온 역사적 과정을 포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필자가 볼 때 ‘개벽’의 순수한 의미에 집착하는 태도나 ‘개벽’의 의미에 관한 종합적 제시 없이 그 현실 적실성을 강조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그러한 접근들은 역사 속에서 발화된 ‘개벽’의 의미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덧셈의 계승보다는, 그것을 왜소화하는 뺄셈의 계승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에서는 ‘개벽’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다만 여기서는 탐구의 주안점을 방법론 발견, 즉 둘 이상의 정리 방안을 비교·검토해서 최적의 정리방식을 찾아내는 것에 두진 않는다. 그보다는 필자가 유용하다고 판단한 정리 방안을 선택하여 그 방식에 맞게 실제적인 정리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큰 틀에서 ‘개념사’ 연구방법을 활용하되, 여기에 ‘개벽’의 역사적 의미들을 담을 수 있는 필자 나름의 방안을 결합해서 정리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선택하고 제시하는 정리 방안이 ‘개벽’의 의미를 포괄하는 최선의 방식이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별개로 이 글에

5) 김용욱(2021), 『동경대전. 2: 우리가 하느님이다』, 통나무, pp. 34-56.

서 제시한 과제의 해결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은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아마 이 글이 그동안 탐구되어 온 역사 속 ‘개벽’의 의미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잘 수납(受納)했는가 여부가 될 것이다.

‘개벽’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수납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 필자는 다음 세 가지를 시도한다. 첫째, 통시적(通時的) 관점에서 ‘개벽’의 주요 용례를 그 지속 주기를 기준으로 장기·중기·단기의 세 층위로 구분한다.⁶⁾ 이런 구분법을 사용할 경우, 전술한 ‘세상이 열린다’라는 오래된 의미가 오늘날의 사전 풀이에도 남아있는 양상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공시적(共時的) 관점에서 ‘개벽’의 용례에 내포된 의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핵심용어-연관어-발화상황’의 3층 구조를 시야에 넣었다. 이 구도는 특정 시점에서 핵심용어에 담기지 않고 그 주변에 포진하던 의미가 이후에 핵심용어의 의미로 결합되는 변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셋째, ‘개벽’의 의미가 전개되는 양상을 ‘불온성’과 ‘개념화’ 간의 긴장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관계 설정은, 수운의 ‘다시개벽’부터 1920년대 천도교청년층의 ‘지상천국’에 이르는 동안 동학·천도교 관계자가 사용한 ‘개벽’의 의미를 역동적 구도 위에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불온성’은 자신을 옹아매는 현존 질서를 즉각 부정하는 민중적 ‘혁세(革世)’의 욕망을 가리키는 것으로, ‘개벽’을 ‘개벽’답게 만든 의미소(意味素)라 할 수 있다. ‘개

6) 독일 개념사를 정초한 라인하르트 코젤렉은 ‘성찰적 역사주의’를 주장하며 이런 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코젤렉은: 인용자) ‘과연 근대가 얼마나 새로운가’를 알려면, ‘전통적인 역사의 얼마나 많은 층위들이 현재에도 지속되는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대적 ‘역사’ 개념의 출현 이전에 있었던 여러 역사들과 근대 역사를 역사적 시간의 다양한 층위 속에서 연결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브로델의 선례를 따라, 역사의 층위를 단기적 사건의 층위, 그 밑의 중기적 변화, 그리고 보다 깊은 곳의 장기지속이라는 상이한 속도를 가진 세 범주로 나누어, 사건, 중기적, 그리고 장기적 구조 사이의 상호 관계를 분석할 것을 강조했다.” 나인호(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 역사비평사, pp. 165-166.

념화’는 ‘개념’이 되는 양상, 즉 어떤 용어가 그 이전의 다양한 용례 및 의미를 포괄하면서 복합적 의미를 띤 개념이 되는 현상인데,⁷⁾ 이 글에서는 특히 ‘개념’이 지닌 근대적 성격에 주목했다.⁸⁾ ‘개념’은 과거의 경험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개념화’ 과정은 곧 진보적 시간 인식이 내면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구도에서는 ‘개념화’에 동반된 점진성이라는 시간 구도가 ‘불온성’에 내포된 즉각적 부정성과 상충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2. ‘다시개벽’의 불온성과 트라우마

2.1. 수운의 ‘다시개벽’과 불온성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 ‘개벽’은 대부분 ‘개벽 이래’, ‘천지개벽 이래’라는 용례로 사용되었다. 이 용례에서 ‘개벽’의 의미는 ‘우주나 세상의 처음’, ‘태초’ 등에 국한되었다.⁹⁾ 그런데 조선왕조의 지배질서가 크게

7) 나인호(2011), p. 53 참조.

8) 이 글에서는 ‘근대’를 ‘자본주의 체제와 국민 국가를 선취한 유럽 국가들이 제국주의적 팽창으로 지구상의 여타 지역을 침략하고 지배한 시대’로 본다(김정인·이준식·이승순(2016), 『한국근대사』 2, 푸른역사, p. 8 참조). 이 글의 제목에 있는 ‘근대 전환기’는 그리 엄밀한 명명은 아니지만 수운에서 1920년대에 이르는 기간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했다. 이 시기는 조선왕조의 지배질서가 이완되고 새로운 ‘근대적’ 질서가 형성되는 복합적 국면에 해당하고, ‘개벽’의 의미 전개에서 특히 흥미롭고 역동적인 변화가 나타난 시기이다.

9) “아아! 천지 개벽(天地開闢) 이래로 대역(大逆)을 경전(經典)에 두었다는 말은 여지껏 듣지 못하였습니다.”(嗚呼! 自開闢以來, 置大逆於經典者, 概乎未聞。) 「사간원에서 회안군·불노·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1410년) 1월 17일 갑신 1번째 기사.

http://sillok.history.go.kr/id/kca_11001017_001

이완되고 서양 열강의 동아시아 침략으로 중국 중심의 천하관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던 시기에, ‘개벽’의 의미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19세기 중엽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의 ‘다시개벽’이 그것이다. 수운은 동학의 포덕을 시작하던 무렵인 1861년 여름 「안심가」를 지어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라 하였다.¹⁰⁾

이 대목은 ‘각국에 전염병이 도는 것을 보니 천지개벽과 같은 큰 변동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¹¹⁾ ‘개벽’의 의미 흐름에서 이러한 용례는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¹²⁾ 수운의 텍스트에서 ‘개벽’은 더 이상 아득한 과거나 막연한 미래의 일을 가리키는 용어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수운을 포함한 당대 사람들에게 임박한 사건으로 재인식되었다.¹³⁾

그런데 ‘다시개벽’이 갖는 의의를 ‘개벽’의 임박성을 환기한 점에 국한할 순 없다. 이와 연관되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의의는 실천성, 즉 그러한 ‘개벽’을 현실에서 이루고자 한 점에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수운의 「검결」을 살펴보자.

때가 왔네 때가 왔네 다시 못 올 때가 왔네
 뛰어난 장부에게 오랜만에 때가 왔네
 용천검 드는 칼을 아니 쓰고 무엇 하리¹⁴⁾

10) 「안심가」, 그리고 「몽중노소문답가」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한번 더 사용되었다.

11) 김신회에 따르면 ‘괴질운수’라는 수운의 표현은 1859, 1860, 1862년의 3년 동안 계속되던 콜레라의 공포에서 나왔다. 김신회(2020), 「조선후기 정감록 예언의 역사적 변천—기억에서 기록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48, pp. 153-154 참조.

12) 1장 머리말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의 ‘세상이 뒤집힌다’라는 의미에 주목한 바 있다. 필자는 여기에 담긴 ‘현존하는 세상이 크게 바뀐다’라는 함의는 수운의 ‘다시개벽’에서 비롯한 것으로 본다.

13) 한승훈(2018), p. 228 참조.

14) ‘時乎 時乎 이내 時乎 不再來之 時乎로다 / 萬世一之 丈夫로서 五萬年之 時乎

인용 부분은 「검결」의 앞부분이다.¹⁵⁾ 이 글의 서술 맥락에서 주목할 대목은 ‘용천검 드는 칼을 아니 쓰고 무엇하리’이다. 「검결」의 성격에 대해서는 변혁적 성격에 주목하는 견해와 종교적 행위에 중점을 두는 입장이 상충하지만, 그러한 본질 차원의 성격 규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조선왕조 지배세력에게 불온의 빌미로 활용된 사실이다. 그들에게 위의 인용문은, ‘오만 년만의 기회를 맞아 대장부답게 칼을 들자’라는 선동적 메시지로 읽혔다. 당시 조선왕조 집권층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더 불온한 주장이 있었을까?

2.2. 개벽론의 구조

2장 1절의 내용을 읽고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다. “‘다시개벽’과 「검결」의 불온성은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의문이 그것이다. 「검결」에 ‘다시개벽’이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런 의문은 합리적 의심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다음 두 개의 매개항을 근거로 양자가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판단했다. 첫째, 전술했듯이 ‘다시개벽’은 ‘개벽’의 임박성을 환기한 점에서 중요한데, 「검결」의 ‘때가 왔네’는 그러한 임박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문장이다. 둘째, ‘다시개벽’과 「검결」 사이에는 ‘상수학(象數學)적 사유’라는 연결고리

로다 / 龍泉劍 드는 칼을 아니 쓰고 무엇하리’. 최제우, 「劍訣」, 『龍潭遺嗣』;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동학의 후천 개벽과 보국 안민」.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treeId=010603&tabId=01&levelId=hm_108_0060&whereStr=%40where+%7B+IDX_TITLE%28HASALL%7C%27%EA%B2%80%EA%B2%B0%27%7C100000%7C0%29+or+IDX_CONTENT%28HASALL%7C%27%EA%B2%80%EA%B2%B0%27%7C100%7C0%29+or+IDX_ALL%28HASALL%7C%27%EA%B2%80%EA%B2%B0%27%7C1%7C0%29+%7D

15) ‘오랜만에’라는 번역어에 해당하는 원문은 ‘五萬年之’이다.

가 있다. 위 인용문의 ‘오랜만에’에 해당하는 원문인 ‘五萬年之’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시개벽’과 상수학적 사유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부연할 필요가 있다. 양자의 관계를 바라보는 상이한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김용옥은 ‘다시개벽’을 상수학적 사유와 엄격하게 준별한다. 그는 ‘선천-후천’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상수학적 사유는 변화의 필연성을 전제한다는 면에서 수운의 ‘다시개벽’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¹⁶⁾ 나아가 그는 수운의 ‘다시개벽’을 ‘후천개벽’으로 파악하는 견해는, 후대의 개념으로 ‘원전의 언어를 재단’하거나 타 종교의 후천개벽적 언어를 외삽하여 ‘동학이나 수운의 순수한 사유를 개척’하는 잘못된 것이라 비판했다.¹⁷⁾

김신회는 이와 달리 19세기 조선에서 ‘상수학적 우주론을 통속화 차원에서 술수로 전용한’ 대표적 인물로 수운을 꼽았다.¹⁸⁾ 그 사례로 ‘오만 년 운수’, ‘상원갑’ 등을 들었다.¹⁹⁾ 나아가 그는 최제우가 “자신이 주장했던 오만 년과 ‘다시 개벽’의 구조를 이전 세기 서울 지식인들처럼 체계화하여 서술하는 높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도, 수운의 주장이 일반 대중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점을 높이 평가했다.²⁰⁾

필자가 보기에 ‘다시개벽’과 상수학적 사유 간에 질적 차이가 있다

16) 물론 김용옥은 다음과 같은 내용도 언급했다. “20세기 우리민족 종교의 대세를 이룬 "선천개벽-후천개벽"은 그 모두가 수운의 "개벽사상"에 이미 그 원초적 싹은 있었지만, 그것이 만개하게 된 것은 모두 일부와 강증산의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김용옥(2021), p. 59. 그러나 ‘선천개벽-후천개벽이 수운의 개벽사상에 그 싹이 있었다’는 것은 논지전개나 서술 비중 면에서 그의 핵심 주장이라 보기 어렵다. 그의 핵심 주장은 ‘선천-후천’을 ‘다시개벽’과 원리적으로 다르다고 한 부분이다.

17) 김용옥(2021), p. 34, 56.

18) 김신회(2020), p. 148.

19) 김신회(2020), p. 149.

20) 김신회(2020), p.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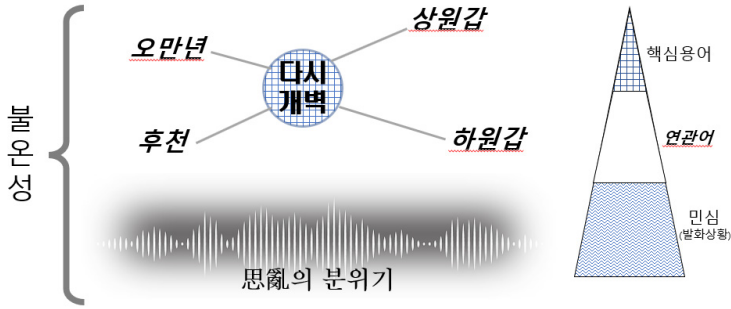
는 주장과, 그 둘이 수운의 사유에서 공존 혹은 혼재되어 있었다는 주장은 충돌하지 않는다. 김용옥의 주장대로 당시 수운은 ‘선천’이나 ‘후천’, ‘후천개벽’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수운의 ‘다시개벽’ 으로부터 곧바로 ‘선천-후천’의 상수학적 사유를 이끌어낼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상수학적 사유를 반영한 용어들이 수운의 텍스트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개벽 후 오만년’이나 ‘상원갑’, ‘하원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나아가 그것들은 수운의 전체 메시지에서 ‘다시개벽’과 밀접한 의미론적 연관을 맺고 있었다. 예컨대 「용담가」(1860.4)에서 수운은 “한울님 하신말씀 개벽 후(開闢後) 오만년(五萬年)에 네가 또한 침이로다”라고 했다. 또한 「몽중노소문답가」(1862.6)에서는 “하원갑(下元甲) 지내거든 상원갑(上元甲) 호시절(好時節)에”라고 했다.²¹⁾ 즉, ‘다시개벽’에 담긴 ‘개벽’의 임박성이 ‘오만년’ 만에 도래한 기회라는 문맥 속에서 더욱 강조되었던 것이다.

2장 1절과 2절의 서술에서 드러나 있듯이 필자가 수운의 개벽론을 이해하는 도식은 [그림 1]과 같다. 왼쪽은 평면도에 가까운데 연결망의 중심에 위치할수록 의미상 중요성이 크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오른쪽은 입면도로서 위쪽에 위치할수록 의미가 더 잘 드러난다는 점을 표시했다.

핵심용어인 ‘다시개벽’이 ‘개벽’의 의미에서 가장 중심적 위치에 있으며, 텍스트 속에서 그 의미도 잘 드러난다. 한편, 수운의 텍스트에서 ‘상원갑’, ‘하원갑’, ‘오만년’, ‘선천-후천’과 같은 상수학적 용어들은 ‘다시개벽’과 동일 문장에서 함께 사용되었다. 이런 관계는 [그림 1]에서 실선으로 표시했다. 이들은 의미의 중심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핵심용어인 ‘다시개벽’의 주변에 위치했고, 의미의 가시화도 중간 정도이다.

21) 허수(2012), p. 140, 143-144.



[그림 1] 수운의 개벽론을 이해하는 삼층 구조

맨 아래 ‘사란(思亂)의 분위기’ 혹은 ‘민심(발화상황)’이라고 표시한 부분은 ‘다시개벽’이 발화되던 시대상황 혹은 민심의 동향에 해당한다. 이는 수운의 텍스트에서 개벽론에 직접 표현되진 않아서 잘 드러나진 않지만 ‘다시개벽’의 발화와 그 의미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그런 상황은 이미 「검결」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처럼 19세기 중엽 수운의 ‘개벽’은 언어적 연결망과 그것을 둘러싼 ‘불온’한 기운 속에서 발화되고 있었다. 이런 메시지는 현 지배체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에너지를 가졌다는 점에서 잠재적 폭발성을 가졌다.

2.3. 트라우마와 ‘개벽’의 부재

동학 교단의 활동과 민란의 흐름이 합류하여 1894년 갑오년에 동학 농민전쟁이 발발했다. 그 도화선이 된 고부지역의 사발통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매일 난리(亂亡)를 바라던 민중(民衆)들은 곳곳에 모여서 말하되,
 ‘났네 냈어 난리가 냈어’, ‘에이 참 잘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百姓)이 한사람 남아 있겠나'하며 때(期日)가 오기만 기다리더라.²²⁾

여기에는 '난리'를 바라는 민중의 정서가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것은 한 세대 전 수운이 노래한 '다시개벽' 및 「검결」의 불온성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시작된 동학농민전쟁은 주지하듯이 1894년 3월 20일 무장(茂長)에서 봉기한 뒤 관군을 격파하고 승승장구하며 마침내 4월 27일 전주성을 점령했다. 이후 일본의 경복궁 점령과 친일정권 수립으로 동학농민군이 9월 중순 재봉기할 때까지 몇 개월간 집강소 시기가 열렸다. 이 시기에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일대를 중심으로 각종 개혁을 추진했다. 이 기간에는 '악덕 양반이 상놈에게 혼쫓이 나는' 일이 빈번했다.²³⁾ 신분제적 질서가 조선왕조를 떠받치는 핵심 원리인 점을 고려하면, 그것은 천지가 뒤바뀌는 '다시개벽'에 비견되는 상황이다. 그러

22) “每日亂亡을 謳歌하던 民衆드른 處處에 모여서 말하되 「나네 낫서 亂離ㄹ 낫서」 「에이 참 즐되얏지 그냥 이딴로 지너서야 百姓이 혼사람이느며 잇겠느」 하며 期日이 오기만 기다리더라”(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고부의 사발통문」). 이 사발통문은 1893년 11월(음력)에 작성되었다.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hm/view.do?period=&tabId=c&theme=&levelId=hm_117_0010

23) 1920년대 중반에 동학농민전쟁 당시의 사실을 회고한 기사가 잡지 『개벽』에 실렸다. 집강소 시기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당시의 분위기를 파악하기에 충분하다. “「이놈들이 꿈쩍 말고 말 들어라. 우리는 너희들이 대대로 두고두고 부러먹고 짜 먹고 학대하고 천대하던 중놈이다. 天連이 循環하사 否往泰來 되는 줄을 너희 어찌 알았더냐? 상놈이 양반되고 가난쟁이 부자되는 줄을 너희 어찌 알았더냐? …(중략: 인용자)… 저놈이 그 중 暴虐한 놈이니 밟아 죽여라. 저놈은 죽일 것은 없고 벌거벗겨 대추나무에 매달고 불알을 까자. 등 實로 悽慘 無雙이었다. 수백 년 간 싸이고 쌓였던 不平의 불덩이는 이렇게 터졌다. 수백 명 奴僕의 버리고 버려던 復讐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代代두고 忠淸道 王으로 자처하던 金門은 奴僕의 손에 이렇게 결단났다.”(新丙寅生, 「우리는 중놈이다」, 『개벽』 65, 1926년 1월, pp. 90-91).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현대 한국어 문법에 맞췄다.

나 이런 현장에서 ‘개벽’은 언급되지 않았다. 개벽적 상황이 막상 벌어졌고 그것을 표현할 용어도 한 세대 전에 나타났지만, 양자의 연결, 즉 당시의 상황을 ‘개벽’으로 발화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개벽의 현장에서 ‘개벽’이 보이지 않은 역설은 동학농민전쟁의 전개 과정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봉기의 대의명분을 천명한 「무장포고문」이나 「전쟁」 수행을 위해 동학 교단 차원에서 돌린 「통문」 등에서 지도부는 유교적 의리를 앞세웠다.²⁴⁾ ‘개벽’이라는 용어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한두 해 전에 벌어진 교조신원운동(敎祖伸冤運動)에서도 마찬가지였다.²⁵⁾

이러한 역설을 이해하는 데 다음 설명을 참조할 수 있다. 지도부가 ‘봉기의 명분을 세우고 동학 교단 너머로 참여층을 확대하기 위해 유교적 원리를 활용’했다는 것이다.²⁶⁾ 최근에는 이와 달리 ‘농민전쟁의 발발에 이단의 종교사상은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농민군은 지배층이 내세운 민본(民本)과 인정(仁政) 이념을 내면화하고 전유했기 때문이다.’라는 견해도 나왔다.²⁷⁾ 설득력이 있으나 이런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전자의 ‘유교 활용론’만으로는, 동학 교단 내부용 통문이나 은밀하게 진행된 동학의 종교적 집회에서도 ‘개벽’이 잘 사용되지 않던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²⁸⁾ 후자인 ‘유교 이념 내면화

24) 동학농민군이 조선왕조의 지배이념인 유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주장과 행동을 정당화했던 면모는 다음 연구를 참조. 배향섭(2017), 「동학농민전쟁의 사상적 기반과 유교」, 『역사학보』 236, p. 4.

25) 교조신원운동기 동학 지도부가 유교적 언설 및 道·義 개념으로 정부와 담론투쟁을 전개한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 허수(2013), 「교조신원운동기 동학교단과 정부 간의 담론투쟁—유교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66, pp. 7-40.

26) 신용하(1985), 「갑오농민전쟁의 제1차 농민전쟁」, 『한국학보』 40(서울, 일지사), p.126; 배향섭, 앞의 글, p. 22에서 재인용.

27) 배향섭(2017), p. 25.

28) 표영삼에 따르면 ‘후천개벽’이라는 용어는 해월 최시형 대인 1892년 1월, 도인

론'은 「사발통문」에 드러난 바 있는, 조선후기 이래 민초들에게 저류하던 '난리를 바라는 마음'(亂亡謳歌)을 간과한 한계가 있다. 문자화·텍스트화되지 않았다고 그러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벽'의 의미 전개를 다루는 본 발표의 관심에서 볼 때 이런 양상에는 동학 교도 및 동학 교단이 가진 '트라우마'가 크게 작용한 듯하다. 앞에서 살펴본 수운의 「검결」에는 오만년 만의 시운에 편승해서 '다시개벽'하려는 욕망이 담겼다. 집권층은 여기에 불온성의 낙인을 찍어 동학 탄압의 빌미로 활용했다.²⁹⁾ 결국 그것은 교조의 죽음과 교단 탄압으로 이어져 동학 교단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이런 점은 2대 교주 최시형이 『용담유사』를 간행할 때 「검결」은 편집에서 제외한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³⁰⁾ 전통적 의미를 혁신한 '다시개벽'은 태어나자마자 거세되었고, 19세기 말 '혁명'적 상황이 도래했을 때 그것을 지시할 '개벽' 관련 용례는 사실상 부재했던 것이다.

3. '후천개벽'과 제한적 개념화

3.1. 1910년대 '후천개벽'의 등장

이렇듯 수운의 처형 후 동학 교단의 언어 질서에서 파여 나간 '다

들의 진실한 수행을 권면하는 「통유문」에서 처음 사용되었다(표영삼(2005), 『동학 2—해월의 고난 역정』, 통나무, p. 182). 해월대의 '후천개벽'이라는 용어도 교단 내부용으로 그것도 한두 번 사용한 것에 불과하였다(허수(2012), 「동학·천도교에서 '천' 개념의 전개—천에서 신으로, 신에서 생명으로」, 한림과학원, 『개념과 소통』 10, p. 145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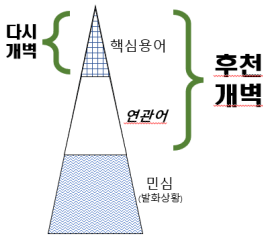
29) 윤석산(2004), 「龍潭劍舞의 역사성과 한계성」, 『동학연구』 17, pp. 144-145.

30) 윤석산(2004), p. 145. 윤석산에 따르면 이후 “「검결」과 검무(劍舞)는 동학 교문에서도 기피하는 노래와 의식이 되었다”다.

시개벽’은 그 후 오랫동안 복원되지 못했다. 이런 ‘개벽’이 다시 등장한 것은 1910년대였다. 1905년 12월 동학은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개벽’ 논의는 주로 천도교단의 종교월간지인 『천도교회월보』를 무대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 ‘개벽’ 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수운의 개벽론을 ‘후천개벽’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개벽’의 의미 차원에서 보면 ‘후천개벽’은 수운의 ‘다시개벽’과 그 주변의 상수학적 용어를 포괄하는 의의가 있다.³¹⁾ ‘후천개벽’이 사용된 문맥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용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천개벽의 기점을 수운의 득도 시점으로 삼았다. 먼저, 수운의 득도를 ‘신천(新天) 오만 년으로 개벽’한 것으로 보는 표현이 나왔다.³²⁾ 다른 글에서는 천도교에 ‘후천개벽의 설(說)’이 있다는 대목이 나타났다.³³⁾ 이런 조합은 마침내 ‘후천개벽 오만년이 시작되는 아침은 경신년 4월 5일이라.’로 귀결되었다.³⁴⁾ 바로 직후인 1912년 1월 오상준이 쓴 「본교역사」에서도 “우리 스승은 후천개벽 5만년의

31) [그림 1]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런 점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32) 「新年에 賀吾道侶의 新天이 益新」, 『천도교회월보』 6, 1911년 1월, p. 1; 김형기(2004), 『후천개벽사상 연구』, 한울아카데미, p. 80에서 재인용.

33) 黃斗源, 「兩人解」, 『천도교회월보』 11호, 1911년 6월, pp. 33-34; 김형기(2004), pp. 81-82에서 재인용.

34) 盧憲容, 「自心先開闢」, 『천도교회월보』 17, 1911년 12월, p. 34; 김형기(2004), pp. 92-93에서 재인용.

신인(神人)이며”[吾師는爲後天開闢五萬年之神人이오]라는 대목이 나온다.³⁵⁾ 둘째, 후천개벽이 선천개벽과 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졌다고 보며 양자를 대비하는 용례가 나타났다. ‘선천개벽은 유형(有形)의 개벽이며 후천개벽은 무형(無形)의 개벽이다.’라고 했다.³⁶⁾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선천’을 ‘야만’으로 ‘후천’을 ‘문명’으로 구분하기도 했다.³⁷⁾

1910년대에 와서 ‘개벽’을 거론할 수 있게 된 것은 천도교로 개칭하면서 포교의 자유를 얻고 교단이 안정화되어 간 사정과 관계가 깊을 듯하다. 선천개벽을 ‘유형의 개벽’으로, 후천개벽을 ‘무형의 개벽’으로 연결짓는 인식은 나중에 전자를 ‘물질개벽’에, 후자를 ‘정신개벽’에 대응시키는 생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는 사유는 전통적인 동아시아 사유에서 없었다. 이런 이원론은 서양의 근대 인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1900년대 후반에 가시화되었다.³⁸⁾ 전술한 무형과 유형의 구분도 크게 보면 이런 맥락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천과 후천이라는 역학(易學)의 용어를 ‘개벽’과 연결하고, 더욱이 그것의 분기점을 수운의 득도로 연결시킨 것은 천도교의 종교성을 강화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³⁹⁾

35) 「본교역사」는 1910년 8월 창간호에서 1914년 11월호까지 『천도교회월보』에 연재되었다. 중간에 중단된 적도 있다. 해제 및 번역문은 이이화의 「본교역사(해제)」를 참조.

http://www.e-donghak.or.kr/bbs/dataimg/ch1105_%EB%B3%B8%EA%B5%90%EC%97%AD%EC%82%AC.pdf

36) 盧憲容, 「自心先開闢」, p. 34; 김형기(2004) 재인용.

37) 김천일(1914), 「선천과 후천의 관계」, 『천도교회월보』 42, 언문부 p. 9; 김형기(2004), p. 92에서 재인용.

38) 러일전쟁 이전까지 한국 지식인들은 서양의 의복·전기·철도 등을 추구했다. 그러나 1905년 무렵 그것들은 물질문명으로 비판받게 되고, 물질문명보다 정신문명이 더 시급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런 주장은 다음 연구를 참조. 윤종문(2014), 「한말 지식인들의 ‘國民精神’論 전개와 그 의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9, p. 30.

39) 동학 지도부는 천도교 개칭 후 교단과 교리를 근대적으로 정비해 나갔다. 기독교

3.2. ‘개벽’의 개념화

1920년대 천도교 계의 ‘개벽’ 논의는 개념화 경향을 띠었고, 교단 내부뿐 아니라 사회를 향해서도 발화되었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런 논의를 이끈 집단은 천도교청년층, 특히 이돈화, 김기전을 비롯한 『개벽』 주도층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글을 중심으로 그 동향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 ‘개벽’은 천도교의 교명인 ‘천도’의 뜻을 풀이하는 5대 핵심 의미의 하나로 자리매김되었다.⁴⁰⁾ 후천개벽에 대응하는 용어나 후천개벽의 성격을 설명하는 표현도, ‘신사회’, ‘신세계’, ‘태평성세’, ‘인문개벽’, ‘인간의 개벽’, ‘정신개벽’, ‘물심 양자의 병행 개벽’, ‘건설적 시대’, ‘지행(知行)적 시대’, ‘실제 개척 시대’, ‘사회적 질병의 통폐 구제’ 등으로 다양해졌다.⁴¹⁾ 또한 이돈화가 1920년대 초부터 사용한 ‘정신개조’, ‘민족개조’, ‘사회개조’ 등의 용어를 1927년경에 ‘3대개벽’으로 통합했다.⁴²⁾

둘째, ‘개벽’은 당시 사상계를 주도하던 주요 용어를 전유(專有)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1920년대 초에 그 대상은 ‘개조’(改造)였다가 1920년대 전반 조선의 청년들 사이에서 사회주의가 본격 대두하자

교의 주일 예배를 본받아 ‘시일’을 설정하고 주말에 예배를 보기 시작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한다면, 후천개벽은 예수의 탄생 전후로 서력 기원을 사용하는 관행을 모방하는 맥락에서 역학의 용어를 접맥한 용어로 탄생했다고 추정된다.

- 40) “天道는 無極, 圓滿, 開闢, 無爲自然, 同歸一體의 5대 法性を 가졌”다(李敦化(1924), 『人乃天要義』, 天道教中央宗理院布德課, p. 34).
- 41) 『인내천요의』, p. 10, 32 등; 이돈화(1924), 「世界三大宗教의 差異點과 天道教의 人乃天主義에 對한 一瞥」, 『개벽』 45, 李敦化(1926), 『水雲心法講義』, 天道教中央總部, pp. 30-31, 99.
- 42) 李敦化(1927), 「天道教と朝鮮」, 朝鮮思想通信社, 『朝鮮及朝鮮民族』 1, pp. 153-157; 허수(2011), 『이돈화 연구: 종교와 사회의 경계』, 역사비평사. p. 202에서 재인용. 이돈화는 정신개벽을 사상개조로, 민족개벽과 사회개벽은 현실개조로 구분했다(李敦化(1931), 『新人哲學』, 天道教中央宗理院信道觀, p. 207).

전유의 중심 대상은 ‘혁명’(革命)으로 이동했다. 천도교 청년들이 출판사 이름과 잡지 제호에 ‘개조’ 대신 ‘개벽’을 사용한 일은 전자의 대표적 사례이다. 후자의 예는 이돈화가 1926년에 『수운심법강의』(水雲心法講義)를 발간하면서 “후천개벽의 이상(理想)은 단순히 종교를 표방하여 말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혁명에 뜻을 둔 자 반드시 이 선생의 근본 뜻에 눈이 열려야 할 것”이라고 한 데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⁴³⁾

셋째, 가장 두드러지고 중요한 양상으로서, ‘개벽’은 점차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통합하는 시간적 구도와 관련해서 논의되었다. 우선 ‘개벽’은 전통적인 순환론이 아닌 사회진화론적 시간인식과 결부되기 시작했다. “世界는 오즉 進化할 뿐으로서 그에서 小는 大로 弱은 強으로, 愚는 智로 漸進하나니 그의 漸進이 卽 開闢이 安인가.”라는 문장이 대표적이다.⁴⁴⁾ 이 글을 쓴 필자는 전통적인 순환론을 근시안적 관찰로 비판하고 진화의 원칙을 강조했다.⁴⁵⁾ 나아가 이제 ‘개벽’은 전환기적 성격을 강조하는 기준이 되면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통합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후천개벽’의 기준점으로 종전의 수운 득도 이외에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이 언급되었다. 1924년 무렵엔 ‘갑자년’을 강조하는 정감록적 언설과 함께 사용되면서 사용 빈도도 증가했다.⁴⁶⁾

43) 이돈화(1926)의 ‘범례’ 참조.

44) 오상준(1927), 「개벽어어」, 『개벽』 2, p.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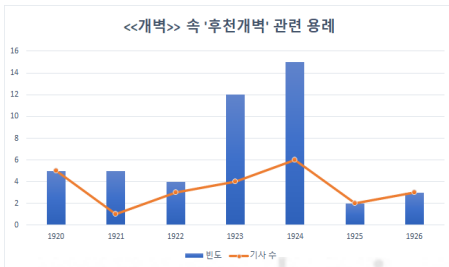
45) “或曰 一治一亂하고 一盛一衰함은 史에 徵하야도 明瞭하나니 此를 推하면 世界란 寧히 循環뿐이라 할지언정 엇지 進化뿐이라 云하리오. 그러나 그는 近視眼의 短距離를 觀察함에 不過하리니 大抵 治亂盛衰는 모다 進化上 過程에 橫在한 사실인 따름이라.” 오상준(1927), p. 41.

46) 천도교 청년들의 글에서는 1924년 무렵 ‘후천개벽’ 관련 용례가 다음 표와 같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텍스트는 『개벽』 본문을 전산화한 자료를 사용했다. ‘후천개벽’으로 간주할 만한 검색어로는 ‘오만년(五萬年)’, ‘상원갑(上元甲)’, ‘하원갑(下元甲)’, ‘선천(先天)’, ‘후천(後天)’, ‘후천개벽(後天開闢)’, ‘천지개벽(天地開闢)’, ‘천개지벽(天開地闢)’, ‘다시 개벽’을 사용했다. 용례를 사용한 기사는

그런데 이러한 ‘개념화’를 ‘개벽’의 이전 시기 의미들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수운의 ‘다시개벽’이 가진 불온성을 사회진화론의 점진적 발전론 속에 순치하는 방향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이돈화는 『수운심법 강의』의 제5장 ‘道理 其二(後天開闢)’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大神師, 천도를 大覺하시고 이 道를 후천무극대도라 하시고 자기를 후천 天皇氏라 하셨다. …(중략: 인용자)… 대신사는 무극대도로써 後天胞胎의 운이라 하여 경신4월 이전을 선천이라 하고 이후를 후천이라 한 것이다. 즉 유래 인습의 생활과 대신사의 理想한 지상 천국의 생활을 理想的으로 분별하여 가지고 전자를 선천의 迷라 하였고, 후자를 후천의 覺이라 하여 이 시대를 후천개벽 시대라 한 것이다. …(중략: 인용자)… 천도를 시간상으로 볼 때에 永劫無始로부터 永劫無終에 이르기까지가 다- 천도의 발전이며 …(중략: 인용자)… 이 점에서 우리시대의 천도는 …(중략: 인용자)… 과거 무궁의 진화로부터 과거를 내적으로 消化하면서 一大 새 진리의 맹아로 今不聞古不聞의 大道大德이 대신사의 심법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일러 無往不復이라는 것이다. 무왕불복이라는 말은 儒家의 해석 …(중략: 인용자)…가 아니오. 이상에 말함과 같이 천도의 진화계급을 말한 것이니 천도가 한 계급으로부터 일층 新계단에 진

총 24개이며, 용례 수는 43개이다. 1924년의 용례 빈도는 15회로 전체 43회의 1/3 이상이다. 『개벽』 발간 연도의 1/6에 불과한 1924년이 그보다 두 배의 용례를 보인 셈이다. 1923년의 12회 중 10월 달의 기사 한편에 7회나 사용되었다.



연도	빈도	기사 수
1920	5	5
1921	5	1
1922	4	3
1923	12	4
1924	15	6
1925	2	2
1926	3	3
총합계	43	24

화하게 됨을 일러 무왕불복이라 한 것이다. (밑줄: 인용자)⁴⁷⁾

여기서 이돈화는 수운의 깨달음 이후를 후천개벽 시대로 보는 1910년대의 논의를 계승하면서도, 수운이 깨달은 천도를 무한한 진화의 점진적 발전 과정 속에 위치시키고 있다. 이런 점진적 태도는 동일 문맥에서 그가 창조를 논하면서, “창조라 하면 갑자기 歷史를 불지르고 인습, 습관을 불질러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대목에서도 확인된다.⁴⁸⁾

3.3. 개념화의 제한성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개벽’의 개념화는 제한적 범위에 그쳤다. 천도교 청년층의 미래 비전은 ‘개벽’의 의미에 충분히 포괄되지 못하고 ‘지상천국’이라는 용어에 별도로 담겼다.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전술했듯이 1920년대 용례를 볼 때 우선, ‘개벽’과 ‘지상천국’은 서로 호환될 수 있는 용어였다. 3장 2절의 인용문 중 두 번째 문장은, ‘대신사가 理想으로 삼은 지상천국의 생활을 후천의 覺이라 하여 이 시대를 후천개벽 시대라 한 것’이라는 요지인데, 여기서도 ‘개벽’과 ‘지상천국’은 밀접하다. 이 무렵 이돈화는 다른 글에도 ‘최수운의 지상천국은 사회개벽의 완성을 가리킨 것’이라고 했다.⁴⁹⁾

이처럼 두 용어는 밀접했고 동일시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런 동일시가 지속된 것은 아니다. 이미 1923년 9월에 정치적 활동을 지향한

47) 이돈화(1926), pp. 68-73. 문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자를 한글로 표기하고 띄어쓰기도 일부 현대어에 맞게 고쳤다.

48) 이돈화(1926), p. 70.

49) 李敦化(1927), pp. 153-157; 허수(2011), p. 202에서 재인용.

천도교청년당이 발족할 때, 가장 처음에 제시된 ‘주의’(主義)로 ‘지상천국’이 천명된 반면,⁵⁰⁾ ‘후천개벽’이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았다. 나아가 1927년 무렵에도 양자를 구분하는 인식이 나타나다가 1931년 단계가 되면 지상천국을 ‘영원한 이상’으로, 민족개벽과 사회개벽을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과 단계’로 봐서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에 이르렀다.⁵¹⁾

개념사의 관점에서 볼 때, 개념은 그 자신의 의미 속에 과거의 경험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포함한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1920년대에는 ‘개벽’의 개념화가 진행되었으면서도 그 개념화가 제한적인 데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미래의 기대는 ‘지상천국’에 귀결된 반면, ‘개벽’ 혹은 ‘후천개벽’은 그와 대비하여 ‘현실’로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개벽’, ‘후천개벽’은 과거의 경험, 특히 1920년대 초중반에 전개되어 온 용례, 특히 정신개벽, 민족개벽, 사회개벽을 개별적으로 가리키거나 삼자를 종합한 ‘3대개벽’으로 정리되는 데 그쳤다.

또한 ‘개벽’의 사용 범위도 『개벽』이라는 종합월간지를 무대로 했으므로 천도교의 종교월간지 지면을 넘어섰으나, 실질적인 유통 범위나 영향 방면은 종교적 테두리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웠다. 천도교 교리의 측면에서도 1920년대에 그나마 활성화된 ‘개벽’은 1930

50) “己未 9월부터 天道教青年會란 것을 조직하여, 한참 奔走하던 天道教 청년인 그들은 최근에 天道教青年黨을 조직하여, 당원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리라 한다. 地上天國의 건설, 이것은 그 당의 主義요. 人間性 자연에 드러맞는 새 제도의 실현, 事人如天의 정신에 드러맞는 새 논리의 수립, 이것은 그 당의 綱領이오. 당의 결의에는 절대로 복종할 것, 이것은 그 당의 約束이다.”(小春(김기전)(1923), 「思想과 傾向」, 『개벽』 39, p. 128)

51) 이돈화, 「(사설) 한울을 위한다함은 잊던 뜻인가」, pp. 4-5; 이돈화(1931), p. 230; 『이돈화연구』, pp.202-204에서 재인용. 다음의 문구도 동일한 맥락이다. “정신개벽은 사상개조를 이룸이며 민족개벽, 사회개벽은 현실개조를 이룸이다. 그리하여 지상천국은 그의 이상주의에 속한 것이다. …(중략: 인용자)… 후천개벽은 현실개조의 신념을 이룸이며”(이돈화(1931), p. 207).

년대와 그 이후로 가면 서술 체계에서 크게 약화되어 갔다.⁵²⁾

4. 불온성의 여진과 하향적 확산

4.1. 불온성 지속의 두 형태

이 글의 3장에서는 1910년대와 1920년대에 ‘후천개벽’이 재론되면서 개념화되는 양상을 그 제한적 측면과 함께 살폈다. 그런데 ‘개념화’를 당시에 ‘개벽’이라는 용어가 갖춰야 할 당위적인 양상으로 상정할 경우, 거기에 제한적 측면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적으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머리말에서도 밝혔듯이 이 글의 의도는 그곳에 있지 않다. 이 절에서는 ‘개념화’의 점진성과 ‘불온성’의 임박성·즉각성 간의 긴장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당시 천도교단의 이론가였던 이돈화와 오지영은 천도교단의 분화 과정에서 신평파와 혁신평파의 입장을 각각 대표했다. 혁신평파는 교리 이해와 현실 운동의 두 측면에서 사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세력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두 세력이나 두 사람의 관계를 주로 갈등적 구도 속에서 다루었으나, 이 글의 관점에서 본다면, ‘개벽’의 불온성이 지속되는 두 양상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다.

수운의 『검결』은 1910년대의 ‘후천개벽’ 재론에도 불구하고 천도교 텍스트에서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오지영은 『동학사』에서 ‘검가를 염송하면 공중으로 한길(一丈) 넘게 솟아오른다(騰空)고

52) 이돈화는 1930년대에 전개한 종교적 사색 결과를 『동학지인생관』(東學之人生觀)(1945. 2)에 담았다. 이 책의 구성을 『신인철학』과 비교할 경우, ‘사회’나 ‘개벽’, ‘도덕’ 등이 주요 목차에서 빠져 있다.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진 않지만, 주요구성을 이루는 네 편의 내용 속에서 잔존해 있을 따름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허수(2011), pp. 248-251.

한다’라고 했다. 용천검을 ‘湧天劍’으로도 표기하고, ‘천제’(天祭)도 자주 언급했다. 이런 내용이 4쪽에 걸친 서술에서 중심 소재가 되었다.⁵³⁾ 물론 당시 천도교에서 일반 교인을 대상으로 종교적 이적(異蹟)을 말하는 경우는 허다했다. 그러나 「검결」 관련 내용을 이렇게 부각한 글은 별로 없다. ‘개벽’의 의미에 주목하는 이 글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인용은 수운 당대에 잘려나간 「검결」의 선동성을 되살리는 맥락에 위치한다. 「검결」과 ‘후천개벽’의 밀접성을 고려한다면, 오지영의 「검결」에 대한 강조는 ‘개벽’이 가진 불온성의 민중적 재현이라고 규정할 만하다.

한편, 이돈화를 비롯한 『개벽』 주도층의 글에도 진화론과의 타협이면에 그에 대한 일정한 거부감 혹은 저항감도 있었다. 이돈화는 “과학상 연구로 나온 진화론”은 “그 본질이 과학적이니 만치 그 연구의 정도가 한계가 있어 인생 출생의 大 근원에 있어서는 그 表明을 더듬는 데 지나지 아니하다”라고 했다.⁵⁴⁾ 나아가 “과학적 진화론은 다만 사람이 하등동물로부터 진화되었다는 증거만 들었”던 반면, “대신사는 과학적 견지를 지나 直覺으로 사람은 神의 표현이라 한 것이 인내천의 인생관이다.”라고 평가했다.⁵⁵⁾ 이러한 이돈화의 생각은 진화론을 범신론적 사유 속에서 상대화한 것이고, 이런 사유방식은 직접적으로는 일본의 ‘현상즉실재론’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⁵⁶⁾ 그리고 이돈화는 그 내적 기반을 수운의 ‘불연기연’(不然其然)에까지 소급했다.⁵⁷⁾

한편 1923년 초 『개벽』의 주요 논설에서는 이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진화론을 상대화하는 생각이 개진되었다. 글의 핵심 논지를 요약하

53) 吳知泳(1940), 『동학사』, 永昌書館 → 1972(1940), pp. 20-23.

54) 이돈화(1926), pp. 78-79.

55) 이돈화(1926), p. 80.

56) 허수(2011), pp. 63-70.

57) 허수(2012), pp. 153-154.

면 다음과 같다.⁵⁸⁾

- a) 현대 문명이 영원한 진리라면 未開者는 半開者, 半開者는 開化者를 따라야 한다.
- b) 그런데 현대 문명을 파괴해야 최후의 행복에 도달한다고 가정할 경우, ‘半開’한 조선이나 ‘미개’한 나라들이 그곳에 가려면 현대 문명을 모두 경험해야 할까 아니면 그것을 거치지 않고 지름길로 가는 방법이 있을까?
- c) 최후 행복을 인류주의(사회주의 포함) 실현으로, 그리고 그 걸림돌을 군국주의나 자본주의라 하면, 한쪽 입장은 조선에는 군인도 없고 조선인은 민중적 무산계급이므로 누구보다 먼저 그 행복에 도달한다고 본다. 다른 쪽 입장은 현대 문명의 폐해를 절실히 느낀 자라야 고통을 힘 있게 제거할 勇力이 생기므로 조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
- d) 최후의 행복을 기준으로 보면, 그 경로인 현대문명에 아직 가지 못한 우리나라, 미리 현대문명에 갔다가 엉뚱한 길(橫道)에 빠져 방황하는 자나 비슷한 거리에 있다. 따라서 조선 사람에게는 기회이니 낙심 말고 노력하자.

이 글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발전 경로를 모색하는 이 글에서는 사회진화론이 전제하는 단선적 발전론 도식(a)을 비판하는 사유(d)가 나타났다. 이런 사유는 사회주의의 발전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새로운 사유를 재빨리 받아들여 소개할 수 있었던 데에는, 천도교 청년층에게 사회진화론적 발전론을 상대화하는 마인드가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글 2장에서는 ‘다시개벽’의 임박성과 실천성,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한 ‘불온성’에 주목했다. 3장에

58) 저자미상(1923), 「問題의 解決은 自決이나 他決이냐」, 『開闢』 33, pp. 111-112.

서는 이돈화가 1926년 경 사회주의적 ‘혁명’ 개념을 ‘후천개벽’과 접목하기 위해 『수운심법강의』을 발간한 면모를 살펴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위 인용문에 나타난 1923년 무렵의 이돈화 생각은 그러한 불온성의 철학적 지속 양상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4.2. ‘개벽’의 하향적 확산과 복류

지금까지 동학·천도교 차원에서 발화된 ‘개벽’의 용례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개벽’의 의미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 시점과 해당 용례를, 시간적 주기의 장단에 따라 대략 세 층위로 구분해서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개벽’ 용례의 다층적 전개

[그림 2]에서 맨 위의 ‘개벽’은 ‘세상이 열린다’라는 전통적 의미로 장기지속적 층위에 해당한다. ‘다시개벽’과 ‘후천개벽’은 의미의 영역이 완전히 동일하진 않으나 상호 계승관계가 더 커서 동일 선상에 배열했으며, 19세기 중엽에 출현해서 지속했다는 점에서 중기지속적 층위로 보았다. 맨 아래의 ‘지상천국’은 ‘후천개벽’과 의미상 유관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벽’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지 않았다는 형식적 측면과 함께, 그 내용 면에서도 차이가 적지 않았고 용어의 위상도 달랐다. 이 ‘지상천국’은 1920년대에 나왔으므로 이 글이 다루는 범위에

서 보면 타 용어에 비해 단기지속적 층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개벽’이 가진 의미론적 위상을 더욱 거시적 맥락에서 관찰하기 위해서는, [그림 2]에 제시한 통시적 구도를 유지하되 시야를 동학·천도교 바깥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벽’을 그와 의미 차원에서 경쟁관계에 있었던 ‘역사’ 및 ‘혁명’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역사’와의 비교이다. ‘천지개벽’은 조선시대에 ‘천지개벽이래’ 혹은 ‘개벽이래’로 많이 사용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開闢以來’를 검색어로 입력하면, 빈도는 264건(승정원일기), 41건(조선왕조실록), 26건(도서), 18건(연속간행물) 순이다. 대부분 고빈도는 전근대 자료이다. 그런데 ‘개벽이래’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면서 빈도가 전체적으로 높아 ‘개벽이래’와 비교할 만한 용례로는 ‘有史以來’가 있다. ‘有史以來’를 동일 검색 사이트에서 입력하면, 빈도는 137건(연속간행물), 32건(문서) 순이고 나머지는 각각 10건 미만이다. 이 결과는 앞과 정반대로 근대 자료에 집중되어 있다.⁵⁹⁾ 그럼 언제부터 비슷한 의미를 가진 두 용례의 빈도가 역전되었을까? 1900년

5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2021.11.09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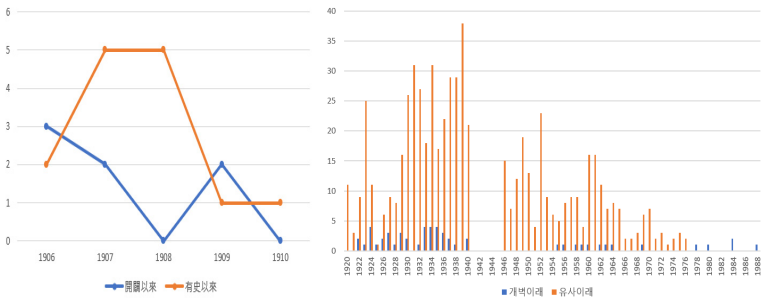
자료		開闢以來	有史以來
편년자료	조선왕조실록	41	1
	승정원일기	264	1
	명실록	9	0
	청실록	8	0
	자료 고종시대사	3	0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1	2
	자료대한민국사	0	2
도서	26	6	
연속간행물	18	137	
목록연구논저	-	6	
문서	7	32	
계	377	187	

‘自古以來’의 결과도 ‘개벽이래’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검색결과 총 427건. 369건(편년자료), 33건(도서), 11건(연속간행물), 9건(문서), 5건(목록연구논저) 순이다.

대 후반의 잡지자료와 1920년부터의 신문자료에서 사용된 두 용례를 거칠게나마 살펴보면, 이미 1900년대 후반부터 ‘유사이래’가 조금 우세한 상태를 보였고, 1920년부터 그 우위가 뚜렷해진 뒤 갈수록 격차가 커져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⁶⁰⁾ 이런 결과를 통해 우리는 ‘개벽’과 ‘역사’가 ‘○○이래’라는 형식을 통해 서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고, 통시적으로 본다면 1900년대를 변곡점으로 해서 전근대의 ‘개벽’을 근대의 ‘역사’가 대체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혁명’과 비교해 보자. ‘혁명’도 ‘세상이 뒤집히다’와 의미적으로 밀접하고 빈도도 높은 편이다. ‘후천개벽’이나 ‘개벽’과 같은 용어는 동학·천도교 계통 잡지나 그쪽 관련 인물이 주도한 『개벽』 잡지를 제외하면, 다른 용어들에 비해 빈도가 더욱 낮게 나온다. 그래서 편의상 『개벽』 잡지의 주요논설 기사에 국한해서 살펴보되, 두 단어를 ‘개조’, ‘해방’ 등 ‘현실의 급격한 변화’로 묶일 만한 용어와 함께 살펴 보았다. 그 결과 4개 단어 중 전기엔 ‘개조’가, 후기엔 ‘혁명’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리고 ‘혁명’의 총 빈도는 311회로서, ‘개벽’의 33회를 크게 상회한다.⁶¹⁾

60) 아래 좌측 그래프는 1900년대 후반 12종 학회지 전산 자료를 활용한 결과이다. 우측 그래프는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에서 검색(2021/08/11 현재)한 결과를 가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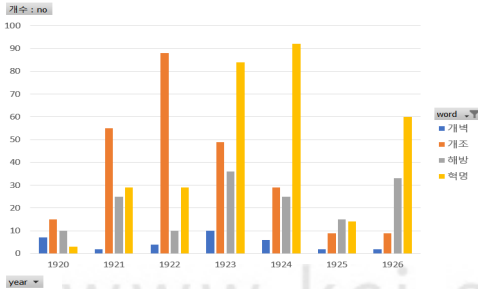


61) 『개벽』 주요논설 33개에서 검색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러므로 ‘개벽’의 용례를 통시적으로 볼 때 ‘개벽’의 두 의미 층위, 즉 전통적 의미와 혁신된 의미 모두 그 주요 용례의 빈도 방면에서 ‘개벽’은 20세기 초에 이미 ‘역사’와 ‘혁명’에게 각각 추월당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개벽’은 ‘역사’ 및 ‘혁명’과 경쟁할 수 없었다. 전자에 비해 후자는 용어의 발생, 의미의 축적, 서구의 역사적 경험, 동아시아 언어질서와의 접촉과 번역 등 광범위한 의미의 전개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1920년대에 ‘개벽’의 개념화를 추구한 천도교 청년층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그들은 심산유곡에서 수도에만 정진하던 자들이 아니었다. 당대 최고의 종합월간지 『개벽』을 운영하며 『동아일보』와 ‘신문화운동의 양대 축’을 담당하던 사람들이었다.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개벽’은 ‘역사’와 ‘혁명’에 견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그렇다면 알고도 그랬을까? 그들은 이러한 ‘개벽’의 열세를 알았지만, 종교적 신심과 포교의 방편으로

연도	개벽	개조	해방	혁명	계
1920	7	15	10	3	35
1921	2	55	25	29	111
1922	4	88	10	29	131
1923	10	49	36	84	179
1924	6	29	25	92	152
1925	2	9	15	14	40
1926	2	9	33	60	104
계	33	254	154	311	752



‘개벽’을 선전하려 한 것일까? 그래서 ‘개조’나 ‘혁명’, ‘역사’ 등의 ‘검증된’ 용어에 편승하는 대신, 굳이 ‘개벽’을 잡지 제호로 하고 ‘후천개벽’을 사용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일까? 그런데 만약 이런 의도라면 굳이 천도교청년당의 ‘주의’로 ‘지상천국’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을까?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일관된 방식이 아니었을까?

필자는 그들이 ‘종교와 사회의 경계’에 있었던 까닭에 이와 같은 양면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현실의 조직으로서나 의미론 차원에서 당시 천도교의 활동에는 ‘종교의 사회화’ 경향과 ‘사회의 종교화’ 경향 간의 긴장이 내재했다. 여기서 ‘종교의 사회화’란 천도교가 근대적 사회조직의 하나로 적응하고 제도화되는 방향을 말한다. ‘사회의 종교화’는 천도교가 자신들의 가치로 사회를 바꾸어나가는 운동성을 견지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1920년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3·1운동 직후인 1920년대 초에는 후자의 경향이 강했지만 1920년대 말로 가면서 전자의 경향이 더 강해졌다. 이런 추세 속에서 1930년대 전반 천도교는 ‘교주정종’(敎主政從)을 내세우고 이전과 같은 사회운동·정치운동을 중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컨텍스트 속에서 천도교 청년층의 ‘개벽’ 사용을 생각하면 ‘개벽’의 제한적 개념화는, 동학·천도교의 후천개벽적 지향을 사회적으로 확산하여 세상을 지상천국으로 만들려는 욕망과,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근대적 문물이 급속히 도입되고 사회적 분화가 진행되면서 천도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줄어들어 간다는 현실인식의 교차점에 위치했다.

이러한 불온성을 잠재한 ‘후천개벽’은 근대적 대중매체나 근대적 지식의 장(場)에서는 그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원불교와 증산교를 비롯한 신종교 방면으로 지속적이고 넓게 확산되어 갔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해방 후 20세기 후반까지도 대동소이했다.

이와 같은 ‘개벽’의 하향적 확산과 복류는 한국인의 근대 경험이 가진 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전통적 왕조 체제의 이완기에

지배 계급의 우주론을 전유한 '다시개벽'의 불온성은, '개벽'이 근대적 언어질서의 변방에 위치함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그 고유한 불온성이 소진되거나 전유되지 않고 보존된 것은 아닐까?

'개벽'과 달리 '혁명'은 언어질서의 중심에 진입했다가 해방 후 분단 체제의 형성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공론장에서 거세되었다. 이후 '혁명'은 1980년대에 '재발견'되어 운동권과 학문 영역에서 일세를 풍미하는 드라마틱한 여정을 밟았다. 이 점에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활성화되던 1980년대 중반 수운의 「검결」을 민중미술로 재현한 「칼노래」라는 판화는 '개벽'과 '혁명'의 교차점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⁶²⁾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다. 오늘날 근대의 위기와 모순이 강조되고 '혁명'의 진보성도 회의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개벽'에 대한 오래 전의 관심이 다시 생겨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5. 맺음말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약간의 내용을 덧붙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근대 전환기 동학·천도교의 '개벽' 논의를 '불온성'과 '개념화'의 긴장 속에서 고찰하되, 통시적으로는 다층적 주기를 가진 전개 도식과, 공시적으로는 '핵심용어-연관어-발화상황'의 3층 구조를 활용하여 '개벽'의 다양한 용례와 의미를 수납하고자 했다.

19세기 중엽 수운이 제시한 '다시개벽'은 송대 역학의 상수학적 사유 및 「검결」에 반영된 실천적 선동성의 분위기와 결합하여 기존의 의미를 혁신했다. 이런 의미의 흐름은 동학농민전쟁 때 민중의 '난리

62) 오윤, 「칼노래」, 1985년; 변상섭, 「그림속 그림 보기—칼노래」, 『대전일보』 2012.10.04. 재인용.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027236

를 바라는 정서’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다시개벽’의 불온성이 교조의 처형에 빌미가 된 일은 교단에서 ‘개벽’의 논의를 억제하는 트라우마가 되었다. 그 결과 동학농민전쟁기 신분적 질서가 전도되는 ‘혁명적’ 국면이 벌어졌지만, 그런 정황을 ‘개벽’으로 지칭하진 않았다.

1910년대에 ‘개벽’은 다시 논의의 장에 나타났다. 이 때 등장한 ‘후천개벽’ 용어에는 수운의 ‘다시개벽’과 상수학적 사유가 포괄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 시기에는 논의가 천도교단에 국한되었고, 의미의 스펙트럼도 넓지 않았다. 1920년대에는 ‘개벽’의 개념화가 전개되었다. 이에 ‘개벽’의 의미 내용과 발화 범위라는 두 방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개벽’은 당시 유행하던 ‘개조’와 ‘혁명’의 의미를 전유했고, 후천개벽은 다양하게 의미부여 되었다. 후천개벽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도 종교적 차원을 넘어 사회·역사적 차원으로 확장되었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다시개벽’의 불온성은 점진적 발전론 속에 순치되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개념화는 제한적 범위에 그쳤다.

‘개벽’의 제한적 개념화 근거에는 근대적 의미화에 저항하는 면모가 존재했다. 오지영과 이돈화는 각각 「검결」의 선동성에 주목하고, 사회진화론 및 그 단선적 발전론을 상대화하는 방식으로 ‘개벽’의 불온성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천도교단을 넘어서면 당시 ‘개벽’의 위상과 영향력은 결코 높거나 크지 않았다. ‘개벽’은 1900년대를 지나면서 ‘역사’ 및 ‘혁명’에 우위를 내주고 있었다. 이러한 영향력의 비(非) 대칭성을 무릅쓰면서 천도교 청년들이 ‘개벽’의 사용을 고수한 것은, ‘종교와 사회의 경계’에 위치한 실존적 위치에서 유래했다. ‘개념화’와 진화론에 대한 거부감은 얼핏 보면 방대한 진화론의 언설 속에서 간헐적으로 드러난 사례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것들은 ‘후천개벽’의 하향적 확산과 그 이후의 복류로 이어지는, 역사적 실재이자 대안적 가치가 될 만한 경험을 함축한 것이다.

이 글의 서두에서 필자는 ‘개벽’의 역사적 의미를 소외시키지 않고

잘 수납할 것을 목표로 했다. 판단과 평가는 독자의 몫이겠지만 그에 관한 사료 내용 및 선행연구의 주요 성과를 체계적으로 담고자 애썼다. 그렇지만 이런 목표를 향해 가다보니, 동학·천도교 차원의 용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실감했다. 특히 ‘후천개벽’과 관련해서는 증산교와 원불교, 보천교를 비롯하여 한국 ‘신종교’ 방면의 용례와 선행연구 성과를 빠뜨릴 수 없다. 시기적으로는 해방 후 현재까지의 동향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후일을 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자 료】

『표준국어대사전』

『開闢』 『天道教會月報』 『新人間』 『朝鮮及朝鮮民族』

李敦化(1924), 『人乃天要義』, 天道教中央宗理院布德課 → 1928(1924).

李敦化(1926), 『水雲心法講義』, 天道教中央總部 → 1968(1924)

李敦化(1931), 『新人哲學』, 天道教中央宗理院信道觀 → 1931. 8.

李敦化(1933), 『天道教創建史』, 天道教中央宗理院 → 1933. 11.

李敦化(1945), 『東學之人生觀』, 1972(1945. 2), 天道教中央總部.

吳知泳(1940), 『東學史』, 永昌書館, 1973(1940) → 아세아문화사 영인본(1973).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1410년) 1월 17일 갑신 1번째 기사.

http://sillok.history.go.kr/id/kca_11001017_001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고부의 사발통문」.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hm/view.do?period=&tabId=e&theme=&levelId=hm_117_0010

『다시개벽』 2020년 겨울호, 모시는사람들.

【논 저】

김신희(2020), 「조선후기 정감록 예언의 역사적 변천—기억에서 기록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용옥(2021), 『동경대전. 2: 우리가 하느님이다』, 통나무.

김정인 · 이준식 · 이송순(2016), 『한국근대사』 2, 푸른역사.

김형기(2004), 『후천개벽사상 연구』, 한울아카데미.

나인호(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 역사비평사.

배항섭(2017), 「동학농민전쟁의 사상적 기반과 유교」, 『역사학보』 236.

백낙청(2020), 『문명의 대전환과 후천개벽』(박윤철 엮음), 모시는사람들.

변상섭(2012), 「그림속 그림 보기—칼노래」, 『대전일보』 2012.10.04.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027236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편(2020), 『근대한국 개벽운동을 다시 읽다』, 모시는사람들.

윤석산(2004), 「龍潭劍舞의 역사성과 한계성」, 『동학연구』 17, 2004.

윤종문(2014), 「한말 지식인들의 ‘國民精神’論 전개와 그 의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9, 2014.

이이화, 「본교역사(해제)」

http://www.e-donghak.or.kr/bbs/dataimg/ch1105_%EB%B3%B8%EA%B5%90%EC%97%AD%EC%82%AC.pdf

조성환 · 이병한(2019), 『개벽파선언』, 모시는사람들.

최제우, 「劍訣」, 『龍潭遺嗣』 →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동학의 후천 개벽과 보국 안민」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treeId=010603&tabId=01&levelId=hm_108_0060&whereStr=%40where+%7B+IDX_TITLE%28HASALL%7C%27%EA%B2%80%EA%B2%B0%27%7C100000%7C0%29+or+IDX_CONTENT%28HASALL%7C%27%EA%B2%80%EA%B2%B0%27%7C100%7C0%29+or+IDX_ALL%28HASALL%7C%27%EA%B2%80%EA%B2%B0%27%7C1%7C0%29+%7D

한승훈(2018), 「開闢과 改闢: 조선 후기 묵시종말적 개벽 개념의 18세기적 기원」, 『종교와 문화』 34.

허수(2011), 『이돈화 연구: 종교와 사회의 경계』, 역사비평사.

허수(2012), 「동학 · 천도교에서 ‘천’ 개념의 전개—천에서 신으로, 신에서 생명으로」, 한림과학원, 『개념과 소통』 10.

허수(2013), 「교조신원운동기 동학교단과 정부 간의 담론투쟁—유교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66.

원고 접수일: 2021년 10월 9일

심사 완료일: 2021년 10월 28일

게재 확정일: 2021년 11월 3일

ABSTRACT

The Subversiveness and Conceptualization of
‘Gaebyeok’ in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Focusing on Donghak and Cheondogyo

Hur, Soo*

I have systematically organized the usage of ‘gaebyeok’ used in Donghak and Chondogyo in the early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The traditional meaning of ‘gaebyeok’ in East Asia was ‘opening the world’.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Choi Je-woo, a founder of Donghak, proposed ‘*Dashi* (New) Gaebyeok’, which has the meaning of ‘the world is turned upside down’, an innovation of the traditional meaning. However, this usage was not widely used due to its subversiveness.

The discussion on the succession of ‘*Dashi* Gaebyeok’ appeared centered on the Chondo denomination in the 1910s. ‘*Hucheon* (Later Day’s) Gaebyeok’ succeeded ‘*Dashi* Gaebyeok’, but its meaning was expanded to include the Hsiang-shu-hsueh (象數學)-thinking of ‘*Seoncheon-Hucheon* (Former-Later)’. But the discussion of this period was limited to the religious denomination level. On the other hand, in the 1920s, ‘Gaebyeok’ was widely known in society, given various meanings, and discussed in the theory of gradual development. This trend could be called ‘conceptualization’, but such ‘conceptualization’ was limited in scop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limited conceptualization of ‘Gaebyeok’ can be seen as a rejection of modern signification. This was the case of emphasizing the subversiveness of “Geomgyeol” or relativizing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and the unilinear development theory. Of course, ‘Gaebyeok’ did not become a competitor to ‘history’ or ‘revolution’. Nevertheless, it is noteworthy that Chondogyo figures insisted on using ‘Gaebyeok’. At first glance, this attitude may appear to be an intermittent case in the trend of progressive time perception. However, this is a starting point for revealing the fact that the ‘Hucheon Gaebyeok’ has spread and continued to many Koreans, including new religions.